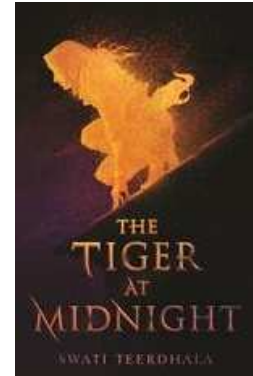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A TIGER AT MIDNIGHT
가제 : 암흑 속의 호랑이
저자 : Swati Teerdhala
출판사: Katherine Tegen Books
발행일: 2019년 4월 23일
분량 : 49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Children of Blood and Bone』, 『Ember in the Ashes』의 뒤를 이을 데뷔 판타지 3부작 첫 번째 이야기 - 복수를 꿈꾸며 잔혹한 암살자가 된 소녀와 왕을 지키는 군인의 사랑과 전쟁

왕위를 빼앗기 위한 대대적인 쿠데타로 가족 모두를 잃은 소녀와 무력으로 빼앗은 왕위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왕의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된 군인이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고아가 된 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소녀 예샤는 평화로웠던 삶을 피로 얼룩진 전쟁과 부모님이 바로 눈 앞에서 처참히 살해된 장면으로 채워버린 쿠데타의 핵심을 찾아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며 냉혹한 킬러로 성장한다. ‘바이퍼’라는 가명으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살자가 된 예샤가 마침내 그토록 꿈꾸던 복수가 현실이 되기 직전에 비극적인 사랑이 시작된다. 예샤의 최종 타깃, 쿠데타를 선두에서 이끌고 반달처럼 휘어진 칼로 부모님의 목숨을 빼앗은 장본인 호타 장군의 조카이자 가장 용맹하고 믿음직한 군인이 된 쿠날과 만난 것이다. 절대 만나지 말아야 했던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은 어떻게 될까? 전쟁과 저주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왕국은 누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인도 남부 지역의 독특한 전통적 요소를 결합시킨 이 독특한 판타지 3부작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살던 예샤와 쿠날이 서로를 통해 전혀 몰랐던 세상에 눈을 뜨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왕국을 구하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쿠날이 모시는 바르단 왕은 원래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붙어 있는 다르카 왕국의 왕자였다. 다르카 왕국과 쿠날이 살고 있는 잔사 왕국은 먼 옛날, 반신반인인 나란과 나리아가 나란히 세운 이후 평화로운 시대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나란은 다르카 왕국의 왕이 되고 나리아는 잔사 왕국의 여왕이 되어 신들을 경배하고 비옥한 땅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며 양국의 백성들 모두 아무 걱정 없이 살던 시대였다. 그러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모든 것을 망치고 말았다. ‘형제의 난’으로 불리게 된 피의 전쟁은 다르카 왕국의 왕자였던 바르단이 자신을 따르는 군인들을 이끌고 잔사 왕국으로 쳐들어와 나리아 왕비를 무참히 죽이고 왕좌를 빼앗

은 그 날부터 시작됐다. 긴 세월 왕국의 경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친밀했던 두 나라의 우호적인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고, 다시 힘의 균형을 찾기 위한 전쟁이 10년 동안이나 지루하게 이어졌다. 바르단을 도와 쿠데타를 성공으로 이끈 호타 장군은 개국공신으로 인정 받아 그가 빼앗은 잔사 왕국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조카인 쿠날은 자신과 같이 일등 군인으로 자라길 바라는 삼촌의 계획대로 어릴 때부터 오로지 왕을 지키는 전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에만 매진해 왔다. 사실 쿠난은 호기심도 많고 잔사 왕국 너머에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은 청년이었지만, 삼촌은 체력을 단련하고 왕국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곳에 정신 팔리는 기미라도 보일라치면 호되게 야단치기 일쑤였다. 그 바람대로 최정예 군인이 된 쿠난에게는 이제 소수의 경쟁자들과 대결하여 삼촌의 자리를 이어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마침 10년간의 전투에 지친 다르카 왕국과 잔사 왕국은 피폐해져만 가는 토양과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고, 휴전 협정에 서명했고 일시적이지만 모처럼 찾아온 평화로운 분위기에 양국 사람들 모두 뿔 듯이 기뻐했다. 이 짧은 시기가 쿠난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마련할 기회였다. 문제는 전쟁 이후 다르카 왕국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던 에샤에게는 이 시기가 호타 장군을 없애고 잔사 왕국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라는 점이다.

호타의 손에 부모를 잃고 함께 목숨을 잃을 뻔한 에샤를 구해준 사람은 바로 다르카의 또 다른 왕자, 하룬이었다. 하룬 왕자 역시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바르단 왕자의 무모한 쿠데타에 깊이 분노하고 어떻게든 과거의 평화를 되찾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지난 10년간 같은 목표를 위해 싸워왔다. 부모님을 위해서도, 목숨을 구해준 하룬을 위해서도 호타를 한시바삐 없애고픈 에샤는 휴전 협정이 체결된 날, 축제 분위기로 들뜬 잔사 왕국에 잠입하여 적의 분위기를 살핀다. 항구에 수시로 드나드는 외국 무역상인의 차림을 하고 컴컴한 성벽을 따라 홀로 정찰을 벌이던 에샤는 병사들이 한창 술을 퍼 마시는 동안에도 홀로 성을 지키던 쿠난의 눈에 띄고 만다. 붉은색 사리 차림으로 성벽 근처를 빠르게 걷어가는 아름다운 여성이 잔사 왕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잔혹한 킬러, 바이퍼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쿠난은 그저 길 잃은 어느 상단의 여성인줄만 알고 친절하게 항구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준다. 채 몇 십 분도 되지 않은 그 짧은 만남에서, 두 사람은 묘한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깊이 끌린다. 에샤는 그가 부모님을 죽인 병사들이 입었던 것과 똑같은 황동색 철갑 옷을 입고 있음에도 따뜻한 눈과 미소에 그만 에샤라는 본명을 말해주고, 쿠난 역시 성을 한시도 비우면 안 된다는 철칙을 깨고 에샤를 직접 데려다준다. 나중이야 서로가 원수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없애야 할 적임을 깨달은 두 사람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채 가라앉히기도 전에 이미 서로를 향해 죽음의 칼을 겨누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휴전으로 평화의 기운이 돌던 다르카와 잔사에는 또 다른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인도 전통 신화와 설화가 결합된 흥미진진한 데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스와티 티어달라(Swati Teerdhala)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재무관리와 역사를 공부하고 기술 업계에서 마케팅 관련 일을 했다. 현재 뉴욕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KILLER T
가제 : 킬러 T
저자 : Robert Muchamore
출판사: Hot Key Books
발행일: 2018년 9월 6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포르투갈, 프랑스 판권 계약 체결**

*** 전 세계 24개 언어로 번역되어 125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CHERUB』의 작가가 선보이는 디스토피아 스릴러 신작**

치사율이 무려 90 퍼센트에 달하는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일당이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한다면, 국가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냉혹한 범죄자들의 돈을 들어줘야 할까? 그러면 아까운 목숨은 살릴 수 있겠지만 누구든 이렇게 치명적인 생물학적 무기를 만들기만 하면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꼴이 될 텐데? 고아 어린이들을 모아 혹독한 훈련을 거쳐 최고의 비밀 스파이로 키워내는 이야기를 다룬 『CHERUB』 시리즈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오른 저자는 처음으로 쓴 한 권짜리 YA 소설에서 미국에 전학 온 영국인 소년 해리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윌가닥 소녀 찰리를 주인공으로 이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를 이야기한다. 두 사람이 열네 살 9학년생이던 해부터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킬러 T'로 명명된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등장과 그로 인한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대에 벌어질 수 있는 놀라운 파장을 십대 특유의 기발하고 유쾌한 시선으로 조명한 특별한 소설이다.

사진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콩고 등 내전이나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가장 위험한 현장을 용감하게 취재하던 엄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해리는 이모 손에 이끌려 미국 라스베가스로 왔다. 위험천만한 취재에서는 늘 멀쩡하게 돌아왔던 엄마가 런던 한복판에서 조깅을 하다가 심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진 일은 해리에게 큰 충격으로 남았다. 열정적인 기자였던 엄마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장래희망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일찍부터 마음을 정했지만 언제 어떻게 엄마처럼 심장에 이상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해리를 늘 따라다녔다. 그러면서도 남들과 다른 비상한 용기와 침착한 대처 능력도 갖춘 아이였다. 이민과 전학을 마치고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 된 어느 날 '굉'하는 폭발음과 함께 2400여 명이나 되는 전교생이 일제히 학교 밖으로 대피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해리는 정신 없이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는 인파에서 빠져 나와 아무도 떠올리지 못한 학교 한 구석의 배수관을 이용하여 누구보다 먼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길로 도망치는 대신 해리는 경찰에게 학교에서 벌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한 후 폭발 원인을 직접 찾기 위해 학교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 엄청난 사건을 진짜 기자처럼 생생하게 외

부에 알릴 수 있도록 현장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기자 정신을 발휘한 이 일이 나중에 다른 일에 쓰일 것이라곤 그 때만해도 해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저분한 트레일러에서 사는 찰리는 여러모로 해리와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힘들게 살았다. 정신병을 앓는 언니와 뇌 손상을 입은 남동생과 함께 생계를 꾸려가느라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았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찰리는 과학에 유독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 가 있는 시간 외에는 싸구려 태블릿으로 각종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읽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학교에서 폭발사고가 벌어졌을 때 찰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도 이런 괴짜 같은 모습 때문이었다. 살아온 환경도, 현재 살고 있는 생활 수준도 전혀 다른 해리와 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사람 각각 다른 이유로 '친구가 없다'는 것, 그리고 뚜렷한 자기 확신과 장래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벌어진 폭탄사고 용의자로 찰리가 지목당한 후, 해리는 어떻게든 찰리를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찰리와 가까워진다는 건 생활을 위해 자잘한 범법행위는 습관처럼 저지르는 사람을 친구로 두겠다는 의미인데, 닳은 구석이라곤 전혀 없는 이런 두 사람 사이에도 우정이 꽃필 수 있을까? 급기야 해리는 찰리에게 애뜻한 마음까지 품게 되지만, 해리는 거절한다. 자신의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큰 충격을 받은 해리는 그로부터 2년 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변형 유전자로 만든 '킬러 T'가 유럽 전역을 휩쓸고 미국으로 언제 건너올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뿌리는 결국 킬러 T와 크게 다르지 않은 원리로 외모를 '개조'한 새로운 버전의 해리가 된 것이다. 무려 7차례에 걸친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 키도 크고 근육질 몸매에 멋진 외모로 거듭난 해리는 이제 찰리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유전자 조작기술이 무슨 요리법처럼 세계 곳곳으로 퍼져 집에서도, 과학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암을 이겨내고 중요한 시험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이유로 뇌 기능을 강화하고 선택 기계나 지방흡입 수술을 받지 않아도 유전자 조작만으로 피부를 검게 태우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과연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까? 저자는 게임을 하듯 인간의 유전자를 제멋대로 바꾸고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결과까지 감수해야 하는지, 이 소설에 등장하는 '킬러 T' 바이러스와 찰리, 해리의 엇갈린 운명을 통해 분석한다. 유럽 대륙 중에서도 영국을 가장 크게 덮친 킬러 T 바이러스는 9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개발자들이 원한 14억 5000 달러의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결론에 따라 영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힘을 모아 백신 개발에 나선다. 그 사이, 해리는 찰리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사실에 충격을 받고 2만 6000 달러를 들여 건강미 넘치는 남자의 모습으로 외모를 싹 바꾼다. 인간의 외모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과 합성으로 자연환경도 확 바뀐 세상에서 전 세계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와 이를 개발한 테러리스트들, 그리고 인간의 회복력에 관하여 수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버트 무캐모어(Robert Muchamore)는 전 세계 24개 언어로 번역되고 1250만 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시리즈 『CHERUB』의 작가다. 그 밖에도 『Henderson's Boys』, 『Rock War』 등을 썼다.